



충청북도 의회 소식



150만 충청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번지/ 전화 (043)220-5123/ (월간)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 및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

충청북도의회는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충청북도청주 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기타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였다.

또한 청주의료원 한방진료실, 제천한방의료사업 BTL사업 추진, 충주의료원 신축부지 이전, 제천고 화재사건, 초등교사 임용시험, 청만의료산업단지 조성 현황, 바이오농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관련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한국관광공사 청주시지사, 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취득 예정지(청주, 옥천), 타



▲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 등 현안을 처리하였다.

시·도 전시간벤션 시설 건설현장과 도정 주요 사업성과와 충북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직무연습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건설 진을 실시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충청북도의회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어떠한 법 개정도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님께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정부의 하이닉스 이전공장 증설 불허 결정을 계기로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에서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 위정자(爲政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공장 신 증설 허용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의 수도권 권역 배제 요구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켜 국토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 신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위가치를 도외시한 채,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워 자연보전권역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현재 공장은 물론 주택 관광지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과밀방지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 등 각종 오염원의 신 증설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설정된 지역인 동시에, 수도권 규제시책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의 주장대로 자연보전권

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의 훼손은 불가피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후진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64년 이후 추진되어 온 수도권 규제시책은 그동안 수도권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거대한 수도권이 형성된 반면, 지방은 인구 및 자본 유출과 지방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 등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수도권 위정자(爲政者)의 주장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믿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수도권에는 첨단 우량기업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에는 부실기업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산업구조를 왜

곡하는 악순환을 유발시켜 지방경제는 자생적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권의 발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및 자본유출 등 희생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더 이상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구하는 [상생하는 균형국토 실현]을 위해,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특화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내 기업 및 인구를 수용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기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어떠한 법 개정도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 3. 22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개 회 사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싹이 움트는 희망의 새봄을 맞아 오
늘 제258회 임시회 개회식에 건강한 모습
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별로 실시한 의원연수
활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도민의 대변

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
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비롯해 수도권규제 관련법의 개정안을 잇
따라 추진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을 보이고 있어, 지역불균형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하이닉
스의 청주공장 증설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닌지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말
은바 소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
하여 충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민

들의 뜻이 관철 되는 날까지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은 한해의 풍요로운 결실을
꿈꾸며 영농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
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인들이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작은 것 하나부터 세심하
게 배려하고 어려운 농촌경제 회생을 위
한 농업관련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발생
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
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켜 나가야 하
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는 오늘부터 28일까지 10
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 도정 및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시에는 그동
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사안이나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
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하
는 한편,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살
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교육발전에도 획기
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를 기대 합니다.

아무췌록 이번 임시회가 활기찬 새봄
과 함께 150 만 도민에게 비전을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민 여
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
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성 명 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많은 도민들의 관
심과 우려 속에 당초 협상시한을 넘겨 4월 2일에 타결 되었다.

이번 한·미 FTA 타결은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와 무역수지를 늘려 생산과
고용을 증대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
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농축산업 및 일부 제조업 등에서 많은 손실과 피
해가 예상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 및 일부제조업의 소득보전대책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대책 등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과 일부 제조업 부문에
대하여 미리부터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
구하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절망과 실의에 빠진 도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07. 4.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담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

-담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및 수해대책 마련키로-



▲ 담특위 활동방향 및 세부운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담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민경
환)는 3월 28일 담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담특위 활동방향 및 운영에 따른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4~7대 담특
위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담 주변지역 지

원금 확대 및 한강·금강수계관리기금
형평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담 상
류지역 수해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활동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특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장세의장 생체협 회장 취임

오장세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3월 19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기
관단체장, 생활체육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충청북도생활체육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날 취임한 오장세 회장은 그동안 생
활체육충북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생활체육 발전과 활성화에 남다른 열정
으로 기여해 왔으며, 만장일치로 추대되

어 2008년 2월까지 직무를 맡게 되었다.

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생체협 회
장으로서의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
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생활체
육의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과 행복지수
를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생활체육이
체육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별 자문위원을 3명으로 증원 위촉키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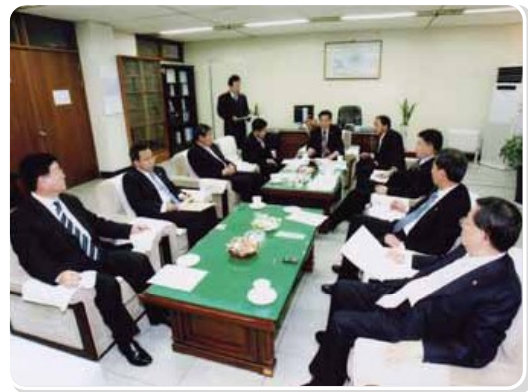
제259회 임시회(2007. 4.16.~4.24.)에서는 4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청북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듣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며 4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화된 행정업무에 대해 소관 위원회가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한 자문위원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일부 조 명칭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정·개정하였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협의 요청한 것으로 도의원 2명,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유경험자 2명 등 총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 간담회
3월 19일 제2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조례안 심사
3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등 심사



▲ 현지활동 3월 15일 하이닉스 예정부지에 대한 현지확인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3월 19일부터 3월 28일 까지 10일간 열린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대규모 공장유치 부지매입 등에 대한 현지 설명회 및 충청북도 행정서

비스 리콜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조례안 심사 7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 승인, 수도권규제완화 반대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원회는 3월 15일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및 남부권 수산자원 개발 내수면연구소 육천지소의 신축 등 공유재산 매입부지 현지를 확인하고 3월 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 승인을 가결하였다.

3월 22일 실시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위정자들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채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어떠한 법 개정도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강력한 반대 의지를 담은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전달

하였다.

제3차 위원회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항공노선을 신규 개설하는 항공사업자에게 6개월~1년간 가량의 안정화 기간 동안 결손금의 일부(탑승률 60~70%)를 도비로 보전하는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재정지원 조례안, 시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고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도보통제 징수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낙후지역에 지원하게 되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4차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원 의원이 발의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중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2007. 3. 19~3. 28까지 열린 제258회 임시회기중 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또한 제천 한방의료사업 BTL 사업·충주의료원 신축부지 이전사업 추진현황과 제천고 화재사건 및 교육청 초등학교사 임용 면접시험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과 가까이 하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3월 22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그

동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개별법령에 의해 수행되어 오다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며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대책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며, 희생·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지원토록하고,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간담회 ▶

3월 19일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신입생 모집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 조례안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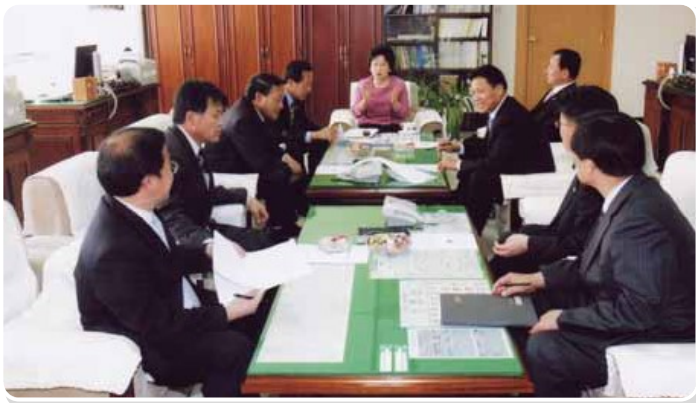
3월 22일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간담회 ▶

3월 19일 위원회 의사 일정 및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 조례안 심사

3월 21일 충북테크노파크 설립및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는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원회는 3월 19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기간 중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3월 20일 위원회 소속 이규환 의원이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 방안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촉구하였다.

3월 21일에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의 10인의 발의로 제안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갑의원의 제안설명과 산업경제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으로 부터 조례 개정후 시행시 문제점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권광택 의원의 수정발의로 안 제1조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를 추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

청남대 관리·운영조례 개정 및 직무연찬 가져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도정질문, 조례안 심사, 자문위원과의 직무연찬, 타 시·도 컨벤션 시설 건설현장 견학,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3월 21일 도정질문에 나선 이 연구 의원은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의 입면, 충북학사 시설환경 개선, 한미FTA에 따른 도의 종합 대책, 지역 균형발전 방안, 충북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도내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및 교육청 인사 등에 대하여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3월 26일에는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한창동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며, 청남대 무료입장권 발급시 6개월의 유효기간을 표시토록함으로써 방문 관람객이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설 관련 의정참고 사항 및 충북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위원과의 위원 직무연찬을 개최하여 자문위원의 강의를 청취하고, 건설, 문화, 관광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3월 27일에는 우리도의 전시컨벤션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방문한 컨벤션시설에 이어서, 건립 중에 있는 인천, 대전컨벤션센터를 방문하여 건립운영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파악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1회 충청권생활체육대회 개최, 충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간 관광산업발전 업무 협약 체결 사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 개정 계획, 바이오 코리아 2007년도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 하였다.

연찬회 ▶

3월 26일 자문위원과 건설분야에 대한 직무연찬을 하고 있다.



◀ 현지방문

3월 27일 인천컨벤션시 건설 현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조례안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다양화된 행정업무에 대해 소관 위원회가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한 자문위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

(주요내용)

• 위원회 자문위원 증원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함.

※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일부 조 명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

(주요내용)

•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도록 제명을 정정.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신규노선 개설에 소극적으로 6월 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항공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인 60% 70% 탑승율 보전.

(주요내용)

• 국내·외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에 따른 결승금,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균 탑승율 및 화물량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경우에 결승금 또는 공항시설 사용료의 일부.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주요내용)

•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사무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신설, 인터넷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등.

※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하던 목적과는 달리 주민의 생활에 불편 등 악영향을 미칠 경우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를 도입.

(주요내용)

• 리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리콜 대상은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
• 리콜의 청구는 200인 이상의 청구권자의 서명, 청구인 대표자 선정을 의무화.

※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권익 향상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주요내용)

• 대상 :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외국인 가정.
• 범위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권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조, 의료지원 행위 등 문화·체육행사.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장학금 수혜대상 선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주요내용)

•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
•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함.
• 장학생의 정원을 시 군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에서 "5%"로 축소하고,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로 정함.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관련조문 정비.

(주요내용)

• 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의 자격기준 보완.

※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2006년 12월 29일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및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와 통합되어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 재단통합에 따라 지역특화센터의 사업추진 근거인 「산업발전법」 추가.
• 재단통합에 따른 테크노파크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수정내용)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다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추가.

※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관련 각종 사업을 수행, 복지증진 및 필요 예산 지원.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직명을 변경하고, 관람시간 및 관람대상을 현실운영에 적합하게 조정함은 물론, 관람객 모집에 따른 인센티브제 및 연수기능을 도입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총무과장'을 '운영과장'로 변경, 하절기를 2월 11월, 동절기를 12월 1월로 조정, 관람객 모집 인센티브제 시행 근거 마련, 입장금지 규정 개정, 연수시설 도입 근거 마련.



임진왜란의 영웅 이영남장군 묘역 문화재 지정해야...



장 주 식 의원

-이영남 장군 묘역 문화재 지정-

[질문] 이순신장군의 오른팔인 양성 이영남 장군의 업적과 충북이 나온 장군의 뜻을 기리고자 임진왜란의 영웅 이영남 장군 묘지 성역화를 위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답변-정우택 도지사] 진천군의 학술고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므로 그 결과 문화재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지정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장군의 사당건립에 대해서는 묘역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우선 진천군과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음.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질문] 노인·장애인·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전담인력 배치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답변-정우택 도지사] 금년초에 성과중심의 탑재로 개편하면서 증원을 억제함에 따라 여유정원이 없는 실정에 있으나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 나타난 시급한 행정수요 등 불가피한 정원에 대하여는 우선 소폭으로 조정할 계획임.

향후 정원조정 시 감사관실에 시설감사인력이 배치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음.

[질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방안은?

[답변-정우택 도지사] 금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산시스템에 인사·세무·후원금 등 각종 정보를 통합관리 운영토록 하고,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종사자 정년제」를 적극 실시토록 권고하고, 윤리강령도 제정·시행하며,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설에 대한

「주민 제보함」을 설치하여 각종 불법사례와 우수·미담사례가 도내 전 시설에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연중 지도감독 방향에 대한 계획은?

[답변-정우택 도지사] 민간전문가와 도·시군 담당부서 및 감사부서 공무원 합동으로 년 2회 이상의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비리를 예방하며, 지도점검결과 운영비리와 불법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며 타시설에도 홍보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음

-외국인체류자에 대한 쉼터 조성-

[질문]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부권 지역에 이들간의 공간이 필요하며 서로간의 의지하고 교화할 수 있는 쉼터 조성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답변-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운영,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에서는 법령에 정

하여진 사항만이 아닌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문화·체육행사 공동개최, 반상회 참여 등 다양한 외국인 지역사회 참여정책도 함께 펼쳐, 우리 지역 사회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수련원·아학 관련-

[질문] 진천의 충북학생수련원과 충남대천의 임해수련원의 이원화된 시설을 통합운영하고 진천수련원을 외국어교육원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견해는?

[답변-이기용 교육감] 현재 진천과 충남 보령에 이원화 운영하고 있는 학생종합수련원의 통합 운영과 함께 외국어교육원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음

[질문] 국어교육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도 확대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답변-이기용 교육감] 앞으로 일본어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과 기초과정 뿐만 아니라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외국어교육원의 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실업대책 방안 및 중소기업종합지원 대책 촉구



이 규 완 의원

-기업지원 대책관련-

[질문]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 방안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은?

[답변-정우택 도지사] 우리 도에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주동적 역할을 수행할 기업인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감으로써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업인 예우강화 2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과 기업인 여권만료 1년전 사전통보

제 등 2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훌륭한 기업인 명의 가로명 명명사업 전개 등 18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참가권 우선부여 등 검토 단계에 있는 4개 과제 중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참가권 우선 부여」는 조례에서 정하는 우수 기업인을 대상으로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시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할 계획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행사에 고객 기부자의 명칭을 헌정(獻呈)하는 과제와, 명예기업의 날 제정 운영 등의 과제는 향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음.

또한 지난 2월 8일 충북기업에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금년 10월말 구축 예정인 [e-기업사랑 센터] Portal site를 통하여 기업지원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과 On-line 민원접수, 처리결과 공개 등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기업경쟁력을 보다 향상시켜 나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1,380억원을 확보, 중소기업증가 기술 우수 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 13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실업 대책 관련 -

[질문] 일자리 창출 방안 및 도내 청년층 실업대책방안은?

[답변-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 도에서는 지난번 조직개편시 「일자리 창출」 전담기능 직원 3명 배치하였고, 「생활체육 지도자, 여성 인턴제 운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등 8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행정 서포터즈제 운영, 직장체협 프로그램 등은 기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5년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 도로관리 대책 관련 -

[질문] 지방도 501호 4차선 확·포장 대책 및 폐고속도로 지방도 승격 대책은?

[답변-송영하 건설재난관리본부장] 본 구간에 대하여는 지난 2005년 3월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건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조정을 검토 중에 있고, 본 노선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어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폐

고속도로 지방도 승격대책은 향후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지방도 노선조정이 있을시 본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도시계획 관련 -

[질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은?

[답변-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고, 특별회계가 미설치된 시군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겠음.

- 학교 과대학급 관련 -

[질문] 옥천 삼양초등학교 과대학급 해소방안은?

[답변-이기용 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 5월로 예정되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인설 심사점시 삼양초등학교가 과대학교인 점과, 공동주택 건축계획으로 학생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부각시켜 삼양초등학교 분리와 옥천초등학교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도정질문

중원문화권 정립 및 균형발전 종합실천계획 촉구



이 군 의원

- 출연기관 임용제도 관련 -

[질문] 도 산하 출연기관장, 중간관리자, 간부직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임용제도 개선 의지는?

[답변-정우택 도지사] 도출연기관장의 임용은 일부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상을 공개모집하여 전문 민간인 및 공무원 출신 등이 임용되었으며 앞으로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임용되도록 하고, 간부급에 대한 임용 역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미 FTA 협상과 관련 -

[질문]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과 피해를 파악하여 도의 종합 지원 방안은?

[답변-김진식 농정본부장]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과수분야에 FTA 기금 지원사업,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을, 채소·화훼분야에 시설 현대화, 과학영농 특화지구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을, 축산 분야에 한우 파워 브랜드 육성,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 대비 금년 상반기 중에 한미 FTA 지원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미 FTA의 지역별영향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할 예정임

- 지역균형발전 관련 -

[질문]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발전 기금의 조성,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등의 종합 검토와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 마련 계획은?

[답변-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비롯하여 지역발전촉진 관련 각종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혁신발전 5

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지역혁신 체제 구축 등 7개 분야의 통합적 연계 추진을 통한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를 통해 낙후지역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도록 할 계획임

[질문] 충주기업도시 관련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국도로부터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 국비확보 대책은?

[답변-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2차 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진입도로 등 기업도시에 대한 국비지원 및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여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법령의 통과를 위하여 협조하고 있음

- 충북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

[질문] 국가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는 중원 역사문화권의 영역 정립 계획은?

[답변-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금년 하반기 중 충주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어 학술조사가 본격화되면 중원문화권에 대한 영역 등이 재정립 될 것으로 봄

[질문] 청주시 등의 특화도시 조성과 남한강관광벨트개발사업에 대한 견해는?

[답변-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향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인근 시도와 협조하여 남한강 주변을 포함한 중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등 대대위 특화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생 학력 신장 및 인사관리 관련 -

[질문] 학생 학력향상 및 교육의 질 향상 및 일제하 형성을 위한 인사관리 대책은?

[답변-이기용 교육감]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각종 학력관리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모의수학 능력시험 및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계획함은 물론 단위학교 중심의 학력관리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음

교육장 인사는 교육 경륜과 조직관리 능력, 교육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급에서 임용하였고, 정년이 6개월 남은 교장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은 후진 양성 등을 위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제천 지역 신규교사 등이 많은 것은 내신제도 적용, 지역 만기제 도입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음.



도정질문

내수면어업 발전 및 시·군 분쟁 조정 대책 마련을...



연 만 흙 의원

- 내수면어업 발전 대책 -

[질문] 우리 충북은 바다가 없는 반면 호수와 강, 계곡 등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5만3천여ha에 이르는 풍부한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청호와 금강수계의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향후 추진 계획은?

[답변-정우택 도지사] 향후 예산 추가 확보 등과 함께 도내 내수면어업의 발전과 도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

면연구소 남부지소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정밀조정 계획에 내수면 연구소 남부지소 설치를 위한 전담인력을 우선 반영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향후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지소 설치와 배정 등 남부지소 설치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시·군 갈등 조정대책 -

[질문] 국책사업 공모 등 시·군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갈등 조정을 위한 도의 역할과 해결방안은?

[답변-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우리도에서는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분산 배치, 바이오농산업단지 선정, 기업도시 선정, 군 교육기관 유치 등 시·군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사례가 있었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자원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음.

- 지역 인재 양성 대책 -

[질문] 지방인재 양성을 위한 중앙과의 인사교류 및 도와 시·군간 전 직급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은?

[답변-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최근 3

년간 중앙과의 인사교류는 전입 21명, 전출 36명 등 총 57명이 교류를 해왔으며, 2004년부터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음.

또한 매년 정부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 3~4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교류자 교류수당, 주택보조비,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업무협조 필요성이 큰 분야 위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적극 유도하고 인사 교류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는 등 교류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조직관리 대책 -

[질문] 팀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 팀별 업무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정책관리실로 이관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답변-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지난 2월부터 팀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팀제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해 나가겠음.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

[질문] 행정자치부가 2007~2009까지 3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을 선정했으나 충북의 경우 단 2개 지역만 선정되어 전국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지?

[답변-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지난해 경험을 거울삼아 중앙부처의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계획과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여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기획단'도 운영할 예정임.

아울러 다른 지역의 계획도 분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의원동정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3월 29~4월 7일 충주시 신니면 등의 지역구를 순방하며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 청취.



▶ 강태원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3월 29일 충북개발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충북비전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교환 및 관계자 격려.



▶ 임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3월 6일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2007년도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업무계획 심의 및 관계자 격려.



▶ 정윤숙 의원
(충주 제5선거구)

3월 23일 아름다운가게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3월 37일 청주 내덕성당 연수원에서 실시된 충북 환경운동연합 총회에 참석, 관련사항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연만흠 의원
(증평 제2선거구)

3월 16일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현안사항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3월 27일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산업폐기물 시설 입주반대 주민 궤기대회에 참석, 현안협의 및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충주 제6선거구)

3월 16일~18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4회 금강산 마라톤대회 및 평화통일기원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3월 25일 단양문화체육관에서 실시된 제3회 충청북도 청·중·장년 배드민턴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3월 23일 영동군 용산면 매금보건진료소 준공식에 참석, 진료관계자 격려,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축하.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3월 8일 제18회 충청북도지사기 쟁탈 영동~단양간 시·군역 전마라톤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3월 12일 청원군민회관에서 실시된 청원벤처농업대학 입학식에 참석, 참석자 및 행사관계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3월 30일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된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3월 22일~26일 일본에서 실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한·일의정세미나에 참석, 의정현안 협의.



▶ 최미애 의원
(열린우리·비례대표)

3월 27일 단재 신재호 都錄[도록] 발간 기념회에 참석, 참석자 및 행사 관계자 격려.



▶ 이규안 의원
(옥천 제1선거구)

3월 24일 옥천군 의원면 일원에서 열린 옥천이원목축제에 참석, 참석자 및 행사관계자 격려.

〈말뚝이 세상뚝이〉

기화(奇貨)가거(奇貨可居)와 권모술

진(秦)나라 왕위를 물려받은 뒤, 진제국(秦帝國)을 건설, 초대황제로 등극한 진시황(秦始皇)의 본명은 정(政)이고 시황제(始皇帝)는 그의 시호(諡號)다.

진시황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전왕 자초(子楚)의 아들로 알려져 왔으나, 사기(史記)에 따르면 자초를 왕위에 오르게 한 여불위(呂不韋)가 생부라는 설이 있다.

여불위는 본디 한(韓)나라의 술수 높은 거상이었다. 그는 조(趙)나라에 장사하러 갔다가, 그 곳에 볼모로 잡혀와 있는 진(秦)나라의 왕손 자초(子楚)의 얘기를 들었다. 당시 진나라는 조나라를 자주 침범하여 양국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조나라에서는 볼모로 잡고 있는 자초를 박대하여 그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자초는 진나라 소왕의 태자인 안국군(安國君)의 스무 명이 넘는 후궁소생 중 열 번째쯤 되는 아들이었는데, 마침 안국군의 정부인인 화양부인에게 소생이 없었

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된 여불위는 옳다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이것은 참으로 진귀한 물건이다. 가히 (사서) 쌓아 둘만 하구나.’ (此奇貨, 可居)

자초의 불행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 물건(奇貨)으로 보고 이를 돈으로 사서 쌓아(居)두면 이득을 볼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장사에 귀재였던 만큼 책략에도 뛰어났던 여불위는 이를 임신에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자초를 만난 여불위는 술깃한 말로 그를 사로잡았다.

“자초 공자님은 진나라의 대통을 이어 마땅한 귀하신 몸이거늘 이런 고초가 어인 일이십니까? 소생이 공자를 안국태자의 후계로 삼도록 할 것이니 공자께서 이를 용납하소서.”

자초는 볼모로 잡혀 고초를 겪는 판에, 뜻밖의 은인을 만난 격이라 이를 쾌히 승낙하였다.

여불위는 당장에 5백금을 자초에게 주어 조(趙)나라 대신들을 융숭히 대접, 환심을 사게 하고 자신은 조나라의 진귀한 물건을 사서 진의 태자부인인 화양부인에게 바치며 아뢰었다.

“자초 공자는 조나라에 볼모로 잡혀계실 망정, 현명하기 이를 데 없는 분으로 조나라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비

록 몸은 멀리 있으나 부인을 생모 이상으로 사모하여 친히 효성을 바치지 못함을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으로 하여금 부인에게 이 보화를 바쳐 불효의 만분지일이거나 대신하라 하셨습니다.”

화양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비록 서자일지라도 자초의 효심이 기특하다고 생각하였다.

여불위는 이어서 화양부인의 언니를 설득, 화양부인이 늙어지면 태자의 총애도 시들 것이고, 차후 태자가 왕이 된 후엔 아들이 없으면 노후가 위태할 것이므로, 자초를 아들로 삼아 후계자로 삼으면 안전할 것이니, 이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여불위의 이런 책략은 성공하여 자초는 안국군의 후계자로 책봉 되고, 훗날 안국왕의 뒤를 이어 진의 왕이 되었다. 여불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 자식을 낳아 아내를 자초에게 바쳤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정(政)이고, 그의 나이 13세에 자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자초의 불행을 기회(奇貨=기회)로 술수를 쓴 여불위는 상국(相國)의 지위에 올라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왕은 성년이 되면서 부국강병책을 써 국정을 장악하고 왕권을 회복하자, 사실상의 생부인 여불위를 추방하고 국명을

진제국(秦帝國)으로 명명하면서 황제로 등극하니, 그가 곧 시황제요 진시황이다.

자초의 불운을 기회(奇貨)로 자신의 영달을 꾀했던 여불위의 책략, 권모술수는 결국 불운으로 끝났다. 진기한 보물이란 뜻 외에 ‘절묘한 기회’란 뜻으로도 쓰이는 기화의 유래가 이러한 여불위의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 때마다 가당치도 않은 인물들이 구국(救國)을 외치며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가당찮은 인물을 기회(奇貨)로 삼아, 자신의 입신을 꾸꾸며 술수를 부리는, 여불위 같은 무리들이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니 민심이 참으로 곤혹스럽다.

정치엔 꿈도 안 꾸면 인사가 이런 책략가들의 술수에 마음이 흔들려 깨끗한 이력에 때를 묻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선거가 깨끗해지려면 여불위 뺀치는 술수꾼들이 사라지고, 능력과 덕성을 겸비한 참인들이 앞에 서고 그를 제대로 보좌할 진실한 참모들이 손을 잡아야 하겠지만, 바람잡이 선거꾼들이 휘저어놓는 흙탕물 속에서, 유권자들 마음 바로잡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안 수 길